

# 포천쑹 인권존중 혁신 Work Shop 개최

## “국민참여형 인권보호 체제 구축강조”



포천경찰서는 지난 2일 경찰서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등 전직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존중 협약을 위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목)는 지난 2일 경찰서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등 전직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존중 협약을 위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혁신 워크숍에 앞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갖고 미사단 야외전술 훈련에 기여한 경비직전계 순경 조

용선 등 3명에 지방장장 표창을, 뽕소니법 검거 유공자 소홀지구대 경사 손수현 등 4명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김영목 서장의 주제로 인권 존중 협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서장은 과거의 경찰생활을 예로들어 현재와 비교하며 시대의 흐름속에 많은 치안환경이 변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각자가 경찰행정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당부했다. 끝으로,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란 주제로 수사과정의 강제가 진행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전 조사실 CCTV 확대설치, 밤샘조사 원칙적 금지, 개인정보의 조화? 사용 업적 통제 등 앞으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추진될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소방서는 지난 3일 포천로타리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정지환자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 포천로타리클럽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교육

### 시청각 교육과 실기교육 병합한 체험의 장

포천소방서(서장 최희기)는 지난 3일 포천로타리클럽을 대상으로 심정지환자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포천로타리클럽 회장 이성덕 등 30여명을 통해 진행됐으며 시청각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합한 체험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교육을 담당할 이원창 구조구급팀장은 인사말에서 봉사를 이념으로 하는 공익단체로 더 많은 사람과 혜택을 낮은 곳에 빛이 되어준 로타리회원들에게 감사

의 말을 전하고 심정지환자는 병원이거나 119구급차가 도착 전에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만큼 오늘 교육이 참되고 내용의 일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천소방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기술과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능력을 증진시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포천시민이 교육에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수혜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㉘

영종면 금주2리 이장 양영명

## 1사1촌 자매결연으로 收益창출

포천시 영종면 금주2리는 성동검문소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금주산과 금주지라는 저수지로 더 잘 알려진 마을이다. 금주2리는 160여세대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이 마을의 이장을 맡아보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고 있는 3년차 이장 양영명(52·사진) 이장으로부터 금주2리의 마을 현황과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양영명 이장은 “금주2리는 예부터 문어리, 수일동, 금주리 등으로 불렸는데, 예전부터 금주산에 금이 많이 나서 불렀던 이름이다”고 말했다.

마을 뒤편에 깃대봉과 금주산이 버티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6만평 가량의 금주지가 마을을 안고 있어 아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금주2리.

이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노인인 전체의 70%는 농업이고 나머지는 기타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마을은 최근 한국전력 포천지점과의 1사1촌 농촌사랑 자매결연으로 아직 그 기쁨이 가시질 않았다.

“지난달 21일 한전 지점과 오리농법 쌀, 토종감자, 흑미, 토종꿀 등을 직거래하고 쌀, 콩, 깨 등을 한전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하였다”는 양 이장.

“이번 사업은 영종농협 관할 각 리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우리 마을이 선정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주2리는 양 이장 이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총무, 청년회(장년회), 부녀회 등으로 마을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3개 반(새마을, 중간반, 뒷마을)으로 나뉘어져 있다.

양 이장은 “개발위원의 경우 마을의 크고 작은 공사가 있을 때 소집되며 특히, 힘이 들어가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청년회라 불려져야 정상이나 노령화로 인해 장년회라 불리고 있는 46명, 마을의 굶은이를 도맡아 하고 있는 부녀회 40명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금주2리는 각종 모범 마을로 선정돼 이미 이름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양 이장은 “15년 쯤 전에 범외 없는 마을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에는 환경개선지구마을에 선정돼 상수도 및



양영명 영종면 금주2리 이장

하수도 등의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금주2리는 오는 6월 발주되는 2차 하수도정화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양 이장은 “이 사업은 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후 총 2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사업이 진행되면 청정마을의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금주2리의 자연환경이 좋아 2003년부터는 마을 인근에 펜션 단지가 들어오고 있다.

양 이장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타고 마을에 펜션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좋으나 대부분 외부 자본으로 건축된 건물로 실질적인 경제이득을 바라기 어렵다”며 “주민들도 이에 부합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주2리도 노인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노인정의 65세 이상 노인이 7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양 이장은 “노령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우리 마을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재 마땅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정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풍채와 1천 개를 지원 받아 마을 공동담 1천여 평에 심을 예정이어서 노인정 수익은 물론 일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일치단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음·면·동장 ㉙ 선단동 강병수 동장

# 늘푸른 전원, 교육의 도시 建設

## 孝가 살아있는 선단동 만들기 역점



강병수 선단동 동장

선단동은 지난 2003년 포천의 시 승격과 발맞춰 포천농협 선단지점 2층에 선단동 사무소를 개청해 출발하게 됐다.

선단동은 포천의 3개 대학중 2개 대학이 위치한 곳으로 경기북부 유일의 대학도시이고, 6공단사령부, 6공병여단, 15항공단 등이 위치한 안보요충지이기도 하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기북부대전테크노파크 유치 조성중에 있는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선단동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인구수 1만4천814명(시의 9.9%) 세대수 5천 712세대(시의 10.1%) 면적 23,92㎢(시의 2.9%) 행정구역 법정동 4, 통수 16통, 반수 62, 자연부락 14, 공무원수 12명(일반 9, 기능 1, 환경미화원 2)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천481명 학교수 3개교(대학교 2, 초등학교 1) 1만 90명 보육시설 9개소(법인 1, 민간 7, 가정 1) 차량대수 5천506대(시의 9.7%) 문화재 3개소(향토유적:전계대원군묘, 자작동지석묘, 경기도기념물:서성선생묘) 군부대 4개부대(군단1, 공병여단1, 항공단1, 통신단1) 등이 분포하고 있다.

선단동의 동장으로 포천시 서무계장, 감사계장, 행정계장 문화공보실장 등을 거쳐 2003년 10월 20일 부임한 강병수(50·사진) 동장으로부터 선단동의 현황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들었다.

강 동장은 “선단동은 2005년도 핵심 실천과제로 늘 푸른 전원·교육의 도시 건

설’을 슬로건으로 찾고 싶은 선단(친절하고 감동적인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선단(함께하는 사회, 더불어사는 복지선단 구현) 아름다운 선단(깨끗하고 쾌적한 늘 푸른 도시환경 조성) 꿈과 미래의 선단(지역특성을 살린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 추진) 참여하는 선단(활기차고 능동적인 참여로 주민자치능력 배양)으로 정했다”며 “이를 위해 새해맞이 소망기원 이벤트행사를 시작으로 효과살아있는 선단동 만들기, 청소년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주민생활 1010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동장은 이중 올해 선단동의 핵심 사업으로 효과 살아있는 선단동 만들기 강화에 역점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더욱 소외되고 있는 노인문제와 관련 효사상의 선양을 통해 어르신들 공경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과가 함께하는 선단(더불어

사는 사회)에 부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연중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단동 내 65세 이상의 노인 및 독거노인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 동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재 독거노인 생활도우미제 지정 및 운영, 사람의 아쿠르트 배달사업 무료 목욕봉사 및 이·미용 봉사 실시, 사람의 한마음 효도잔치, 독거노인 등 야와 나들이 행사, 사람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전달하기, 효 릴레이, 효 자호부 및 효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정선정, 표창 노인여가선용 활용, 서예작품 전시회, 경로당별 후원단체 결연사업, 사람의 지친 봉사 및 만성질환 무료검진, 사람의 건강 효 지팡이 전달, 사람의 일일찾집 운영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등이 펼쳐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동장이 이런 사업을 실시하기까지는 외지인들이 많은 주민특성과 낮은 참여율로 인해 힘이 들었다고 한다.

강 동장은 “주민들이 조금씩 동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것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며 “표면상으로는 대항도 있고 발전된 형태를 보이지만, 실상 도로, 하수도, 가로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이 있음에도 불편함을 감수해 주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시청 및 동정참여를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민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43th Fashion Outlet



43번가 패션아울렛

# HARRIS TONE

“새로 진입하는 성인층, 다시 젊어지고 싶은 기성세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영국적 감성을 지닌 남성과 그의 친구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대의 가격지향적인  
“모던 브리티시 맨스웨어”

- ◇ 나이키 팩터리 스토어
- ◇ 베버리힐스 폴로
- ◇ 트레비스
- ◇ 푸마
- ◇ 해리스톤